

핵심주제

- 동방경제포럼에서 국가 프로그램 '극동부문' 공개
- 극동을 통한 외국인 입국 특별 절차 러시아 대통령 승인
- 극동에 50개 신규기업 출현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3월 24일, 'Komsomolskaya Pravda'

'극동헥타르'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

인적자원개발청은 '극동헥타르' 정책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 입상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6-7일간 열리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된다. 인적자원개발청은 이번으로 두번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문가들이 500개 작품을 평가했으며 이중 일부는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사용되었다.

<http://www.kp.ru/daily/26657/3678557>

2017년3월 17일, Lenta.ru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2017동방경제포럼으로 인도측 초청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인도 공식방문 일정에서 수시마 스바라지 외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도 사업계와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극동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이 있는 인도 대기업들과 협의를 하였다. 부총리는 인도측을 제3회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하였다.

https://lenta.ru/news/2017/03/17/india_diamonds

2017년 3월 13일, Forumvostok.ru

제 3회동방경제포럼에서 국가프로그램의 '극동 부문' 공개

포럼 참가자들은 극동 선도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프로그램의 별도 부문은 분야별 정부 부처에서 준비를 하였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국가 프로그램에서 '극동 부문'의 내용은 지역 주지사들과

직접 조율되었다. 최우선 과제는 교육, 보건, 체육, 문화 분야의 발전, 다리 건설 및 보수, 에너지 인프라 근대화, 농업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27개 국가 프로그램에 극동 사회경제발전과 관련된 특별 부문이 의무적으로 추가되었다. '극동 프로그램'은 국영 기업들의 투자 프로그램에도 있어야 한다.

<https://forumvostok.ru/na-tretem-vostochnom-ekonomicheskome-forume-predstavyat-dalnevostochnye-razdely-gosudarstvennyh-programm/>

2017년 3월13일, Deita.ru

동방경제포럼 공식 일정 준비에 극동지역들 참여

2017년 동방경제포럼 공식일정 구조편성이 마무리 단계이다. 극동 지역들에서 적용되는 모든 신규 솔루션들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페투호프 사장은 극동지역들이 포럼 공식일정 준비에 참여할것을 촉구하였으며 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자들과 실무를 활발히 진행할것을 제안하였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각 지역들의 투자 가능성을 홍보하는 발표회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http://deita.ru/news/crazy/13.03.2017/5190232-regiony-dalnego-vostoka-podklyuchat-k-delovoy-programmt-vef>

2017년 3월 3일, RIA News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문화행사 일정에 유도대회 추가 지시

대학생 및 청소년 단체들과 포럼 참가자들의 면담 결과로 해당 지시가 있었다. 전일본유도연맹 야수히로 야마시타 회장배 대회는 2017년부터 포럼 일정에 포함된다. 대회 참가 연령은 13-15세이다.

<https://ria.ru/sport/20170303/1489254449.html>

극동 국가정책

2017년 3월 29일, Forumvostok.ru

러시아와 중국, 국제 북극포럼에서 극동협력 논의

러시아 로고진 부총리와 중국 왕양 부총리는 아르항겔스크 면담에서 북극 개발 전망과 북극항로 공동사용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원자력 분야 및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협력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러시아 정부가 투자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예를들어, 극동에 도입된 사업 혜택들에 대한 수요가 중국 사업체들 사이에서도 상당하다.

현재 선도개발구역들과 5개 자유항 체제가 도입된 지역들에 중국 투자자들이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투자 총 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다.

<https://forumvostok.ru/na-mezhdunarodnom-arkticheskome-forume-rossiya-i-kitaj-obsudilisotrudnichestvo-na-dalнем-vostoke>

2017년 3월29일, PrimaMedia.ru

극동에 광산업, 인프라 및 건설 분야 프로젝트 투자기금 조성

극동개발기금과 Metropoly사가 해당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금의 2017년도 예산은 10억달러이다. 극동개발기금의 기여도는 10%,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은 80%이다. 나머지 10%는 러시아 투자자들의 몫이다.

신규 기금 조성으로 금개발분야 15개 프로젝트, 극동 구리-금 프로젝트 2개 및 신규인프라와 관광부동산 분야 7개 프로젝트에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primamedia.ru/news/579513>

2017년 3월 16일, RIA News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7만 4000건 이상 '극동헥타르' 취득신청 접수

2017년 2월 1일부터 '극동헥타르' 정책의 제 3단계가 시작되어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극동 토지 취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7600명이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았다.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사할린과 야쿠티아다. 신청자 대부분 주택건설 및 농업, 관광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현재 '극동헥타르' 취득자들을 위한 35가지 지원정책이 있으며 초보 농부들을 위한 지원금, 종자 구매비용 지원부터 각종 기계 구입비 지원까지 다양하다.

<https://ria.ru/society/20170316/1490159979.html>

2017년 3월 7일, EastRussia

러시아 대통령, 극동을 통한 외국인 입국 특별절차 승인

푸틴 대통령이 극동 비자 체제 간소화 법을 승인하였다. 법에 따라 외국인들은 자유항 체제가 도입된 5개지역인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추코트카, 캄차카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들은 러시아 외무부 특별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국경에서 바로 여권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검토 기간은 4일이다.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러시아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최대 8일이다. 비자는 무상으로 발급된다.

<http://www.eastrussia.ru/news/prezident-rossii-ustanovil-osobyj-poryadok-vezda-inostrannykh-grazhdan-na-dalnij-vostok>

극동의 경제

2017년 3월 15일, Rossiskaya Gazeta

'루스아그로'사, 극동 우유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러시아와 베트남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양국은 무역투자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2020년까지 양국간 무역규모를 100억달러까지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양자협력의 주 원동력은 러시아 극동이 될것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베트남 방문 일정에서 밝혔다.

베트남 친딘중 부총리는 베트남측의 대러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정부 기관들에 러시아 극동과의 협력을 활성화 할것을 지시하였다. 부총리에 의하면 베트남 사업계는 조선업, 천연자원개발, 목재가공, 수산물 가공 분야에 관심이 많다.

<https://rg.ru/2017/03/15/vetnam-i-rossiia-k-2020-godu-uelichat-tovarooborot-vtroe.html>

2017년 3월 13일, Rossiskaya Gazeta

극동에 50개 신규기업 출현

2017년 말까지 극동에 5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출현하여 4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산업 조성에 60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도개발구역들의 현존하는 입주기업들의 업무 최적화를 위해 투자프로젝트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극동개발부, 투자자들, 지역정부가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각 프로젝트의 진행도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다. 완성된 포털은 9월 6-7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https://rg.ru/2017/03/13/reg-dfo/v-2017-godu-na-dalnem-vostoke-poiavitsia-50-novyh-predpriiatij.html>

극동 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7년3월 20일, Interfax

JCG Evergreen 러일합자회사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서 2차 온실 착공

신규 야채 재배 단지는 2017년 9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2.3헥타르 면적의 온실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할 계획이다. 재배단지 생산력은 연간 2000톤이다. 2차 온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5억 루블이다. 또한 JCG는 지역정부로부터 의료, 목재가공, 식품생산 분야 프로젝트들에 참여 초청을 받았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print.asp?id=818085&sec=1671&type=news>

2017년 3월 20일, Interfax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산업파크 조성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의 신규 입주기업인 '파루스 산업파크'사가 해당 계약을 극동개발사와 체결하였다. 12.3 헥타르 부지에 항공, 조선업, 석유개발 및 정제용품 생산, 에너지효율장치 및 장비 생산 에 특화된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1억7500만 루블이다. 약 10개의 입주기업들이 2026년까지 산업파크에 산업체를 형성할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816316&sec=1679>